

시론

불의한 승자는 당대에 성공, 결국엔 부끄러운 패자



오 주 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제1의덕목은 '사랑'.

1991년 4월, 입사한 지 1년 만에 노동조합 정책부장으로 일을 하게 됐다. 당시 노조위원장에게 노동조합 활동가가 갖춰야 할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인지 물었다. 위원장은 지체(遲滯) 없이 '종합원과 노동조합, 그리고 회사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라고 답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왜 '사랑'을 제1의 덕목으로 꼽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 후부터 인내천(人乃天), 경천애인(敬天愛人), 사인여천(事人如天)이라는 말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산다.

용서와 사랑은 진실로 너그러운 강자만이 할 수 있는 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신군부가 벌인 김대중내란음모조사건으로 내란 음모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1980년 11월, 김 전 대통령이 아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에서 "나 자신도 죄인이다. 남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증오와 사악으로 괴롭히는 자기가해(自己加害)의 어리석은 행동이다. 용서와 사랑을 거부해서는 인간사회의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성취할 수 없다. 용서와 사랑은 진실로 너그러운 강자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작된 사건으로 억울하게 사형선고를 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사랑과 용서'를 언급했다. 김 전 대통령의 그 마음을 가히 헤아릴 길이 없다.

정치의 안정을 이룩해서 국민적 단결과 사회적 협력을 실현하는 것, 우리나라의 장래는 여기에 달려 있어.

김 전 대통령은 옥중서신에서 우리 역사의 당쟁에 대해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 때 가장 슬픈 것 중의 하나가 다른 민족에게 예를 보기도 못한 잔인하기 짝이 없는 당쟁이다. 사색 당쟁. 동인·서인·남인·북인·대북·소북·노론·소론 온갖 당파가 뒤엉키면서 서로 권력만 잡으면 반대파의 씨를 말렸다. 싸운 당사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삼족을 멸하고 여자는 모조리 데려다 노비로 삼았다. 중국에도 일본에도 없던 일이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현재 우리 정치의 현실을 예견하듯 "지금 우리 민족은 큰 비악의 시점에 와있다. 아마 이 민족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민족적 중흥의 기운이 팽배하다. 미국을 위시한 세계 각지에서 선진 민족들과 겨뤄서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안에서 국민의 교육 수준이나 경제적 행정적 능력의 발휘도 괄목할 만하다. 이제 국민적 단결과 사회 안정만 이룩하여 이대로 20년만 가면 2000년까

지는 선진국의 일원으로 당당한 하나가 되는 것이 결코 불가능 일이 아니다. 오직 하나 요건은 정치의 안정을 이룩해서 국민적 단결과 사회적 협력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 나라의 장래는 여기에 달려 있다. 정치의 안정은 용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서로 용서하며 대화와 화해를 이뤄 나갈 때 이 민족의 고질이자 현재까지 우리의 불행의 최대의 원인인 증오와 보복의 정치는 끝을 고(告)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정의(正義)는 반드시 승리.

김 전 대통령은 2000년 12월 노벨평화상 시상식 수상 연설에서 "1980년 군사정권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6개월 동안 그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저는 죽음의 공포에 떨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는 데는 '정의 필승'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저의 확신이 크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시대에 국민과 세상을 위해 정의를 살고, 헌신 한 사람은 당대에 성공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더라도 역사 속에서 반드시 승자가 된다는 것을 저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승자들은 비록 당대에는 성공하더라도 후세 역사의 준엄한 심판 속에서 부끄러운 패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조차 읽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정의를 강물처럼 흘러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에 찬 삶을 산 김 전 대통령의 소망은 언제쯤 이뤄질까?

社說

국회의원도 동·서부 따로 입법... '산으로 갈' 전남 의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과 같은 당 김원익이 국회의원(목포)이 제 지역구인 순천대와 목포대에 의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전남 권의과대학 정부 추천을 위한 전남도 공모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각자도생' 행보로 빈축을 사고 있다. 모두가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30년 도민 숙원에 대한 정치적 접근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김문수 의원의 특별법은 국립순천대에 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입학정원 100명 안팎, 국가 예산 지원, 국공유재산 무상 양여 및 기금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원익 의원의 특별법은 국립목포대에 의대를 설치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두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 제안 설명에서 열악한 의료 현실에 공감대를 표했다. '2023년 기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전남도가 17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비해 부족하다'거나 '섬 지역 중증 응급환자는 배를 타고 나와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위중한 상태에 이르고

사랑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예시를 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지역으로 의대를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일각에서 반복해서 제기되는 '대통령의 발언 확대 해석', '법적 권한 없는 행위', '행정 편의주의'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도민에게 혼란을 주고 지역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전남도는 대략난감이다. 전남도가 의대 설립 대학을 정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선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도민에 대한 직무유기다. 공모에 모든 대학이 참여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거듭 호소하고 있으나 겉도는 양상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남권 의대 유치가 무산되는 것이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동·서부권 지자체와 대학,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합세해 대립 구도가 고착되고 있다. 전남은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상 유일한 광역 지방자치단체다. 이대로 '배가 산으로 갈' 형국이다. 안타깝고 답답할 노릇이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성과낼 것

전남도가 실질적 자치권 확대를 위한 특별자치도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구 감소 가속화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계기라는 인식에서 국회에 6월 발의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바라고 있다.

특별법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김영록 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은 서울에서 성명서를 내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1970년대 40만명에 달했던 인구가 반세기 만에 절반 이상 사라진 암담한 현실이 그것으로 함께 출산을 이 전구 1위(0.97명) 임에도 고령화를 전국 1위, 매년 8천명의 청년 인구유출과 지역내총생산(GRDP) 88조원 중 2조5천 원의 유출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했다.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30년을 맞아 가장 시급한 과제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서둘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남도와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냈다.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전남이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특례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 소멸 위기 극복 및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는 특별자치도 역시 권한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무늬만 지방자치', '형식만 특별자치도'에서 이젠 벗어나야 한다.

지방 주도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비교 우위의 자원을 활용,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 지역 발전을 도모할 좋은 기회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촉구하는 바다.

김영순의 '문화터치'

원도심 활성화는 어떻게 해야 하나



광주문화재단 전문위원

오랜만에 소극장엘 갔다. 광주 동구 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미로극장, 계단을 따박따박 걸어올라가 제일 위층에 자리한 소극장 객석에 앉았다. 소극장은 추억을 돋게 하는 공간이다. 옛날 기억이 떠올랐다. 친구의 손을 잡고 찾아가 연극 속으로 빠져들었던 때가 바로 잊고계 같다. 오래 전 소극장의 연극 문화는 지금과는 판판이었다. 영화관람 횟수에 비견될 만큼 소극장에 자주 갔었던 듯 싶다. 무려 20~30년 저쪽 너머의 이야기긴 하다. 이후 영화산업은 번창했고 영화관람객은 급증했다. 그에 반해 연극은 쪼그라(?)들었다. 특히 소극장 연극은 애저로울 지경이 됐다. 그런 와중에도 소극장을 지키며 꿋꿋이 소극장 연극에 매진하고 있는 극단도 있다. 마치 독립운동하듯이 말이다.

연극은 매우 재미 있었다. 극단 희망문화컴퍼니가 쏘아올린 '목욕탕 부르스', 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였다. 특히 중년을 훌쩍 넘어선 중장년층은 배우들이 맛깔스럽게 던지는 대사외 연기는 객석에 있는 관객들의 혼을 빼놓기에 충분했다. 동네 사랑방이자 직위의

고하없이 평등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목욕탕'이라는 공간에서 배우들은 이야기를 쏟아냈다. 거기엔 오늘을 살아가는 도시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오래된 목욕탕에서의 이리저리한 사연은 각박한 삶 가운데서도 정을 쌓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였다. 어릴 적 동네 목욕탕의 추억이 되살아났다. 그리고 심각한 청년취업난, 가족간의 사랑, 지인들과의 관계 등이 복잡다단하지만 유쾌하고 재밌게 그려졌다. 소극장 공연이라는 점 때문에 옛 시절의 추억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시간이었다.

다들 지나간 추억은 아름답다고 한다. 아슴푸레 떠오르는 추억은 정말 아름답기도 하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어쩌면 상처나 부끄러움이기도 하고 잊어버리고 싶거나 없애야 하는 대상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과거의 흔적을 송두리째 없애고 거기에 비가변적인 새 것을 갖다 얹었다. 그렇다고 해서 추억의 대상을 없애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낡고 추레한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때문에 과거의 흔적 지우기를 멈추고 이를 문화콘텐츠로 화해 자산으로 남겨야 한다. 이를 잘 보존하고 가꾸 문화관광자원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화두가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것도 그같은 맥락일 것이다. 얼마 전 광주 동구에서 '원도심활성화 공론회'가 개최됐다. 동구는 다른 도시의 중구

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도시의 시작이 이뤄진 곳이기도 다른 지역보다 도시의 역사와 관련한 자산이 풍성하다. 한때 개발이란 명목아래 없애고 새로 짓고 했던 것에서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의 것을 보존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게 이 시대 트렌드가 됐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공론회에서 나왔다. 동계천 복원을 비롯해 원도심역사관(도서관+도시 아카이브 공간), 모바일 중심의 웹사이트 통합으로 스마트 관광 실현, 골목길 활성화, 작가 활성화, 관광길·서남로 로드마켓 조성, 대인예술시장 특성화 등이 그것이다.

누가 뭐래도 추억은 우리가 가진 자산이다. 추억이 상품이 되는 시대다. 더욱이 우리는 짧은 시간 속에서 많은 경험을 했다. 50대 이상의 시니어들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정보사회, 제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다 경험했다. 논밭에서 농사짓는 것에서부터 단시간내에 이룩한 고도의 기술문명사 회까지를 한 세대가 경험한 것이다. 복잡한 이 신속하게 돌아가는 세상살이에서 체험의 만능이 됐다. 이 추억과 체험이 K-Culture를 세계에 우뚝 세운 동력이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 어디서고 찾아볼 길 없는 풍성한 체험에 토대를 둔 스토리의 강력한 힘을 강조하는 것이다. 추억의 편린을 없애지 않고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게 도시의 미래 발전에 주춧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현장칼럼

풍수해, 완전히 막을 순 없지만 예방은 가능하다



윤 예 심

담양소방서장

최근 몇 년간 남부지방에 강력한 태풍과 폭우로 인한 풍수해가 심각하게 발생했다. 담양군의 경우 2021~2023년 자연재해(집중호우, 폭우, 태풍) 출동 현황을 보면 2021년 8건, 2022년 21건, 2023년 77건으로 해마다 그 피해 건수가 늘고 있으며 이는 기후 변화와 도시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풍수해 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대

비와 사전 준비를 강화해야 한다. 정확한 날씨 예보를 통해 많은 비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배수로 상태를 철저히 관리해 침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미리 점검해 문제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또한 계곡이 많은 지형적 특성상 수해로 인한 안전사고가 잦은 지역으로 계곡이나 하천변에서는 안전 거리를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강풍을 동반할 경우에는 창문을 닫고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간판 지붕 등은 날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태풍·호우특보 발효 시 용벽, 축대, 절개지 등은 사전 점검해야 한다. 용벽·담장은 붕괴

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하고 축대의 경우 받침대를 뒤 견고하게 하며 절개지는 절개사면 약화로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살피고 약한 부분은 반드시 지지해야 한다.

이 밖에도 자연재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예방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의 노력이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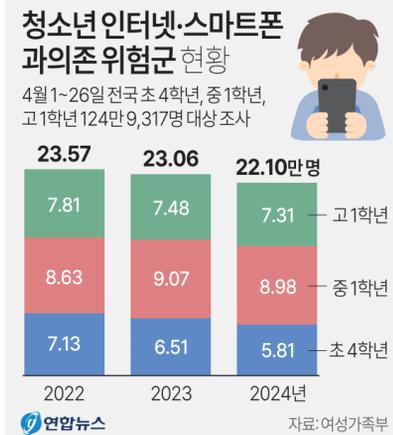
담양소방서는 풍수해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이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일상에서의 사소한 안전요령을 꼼꼼히 챙기는 자세를 확립, 안전의식 향상은 물론,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 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인터넷·스마트폰 빠진 중학생... 청소년 과의존 위험군 40% 차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 중 중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여성가족부가 낸 '2024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참여 청소년 124만9천317명 중 22만1천29명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전년 같은 조사 때(23만634명)보다 9천65명(4.16%) 감소했다. 과의존 위험군 22만1천29명 중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은 17만4천374명,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12만7천845명이었다. 이중 인터넷과 스마트폰 모두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은 8만1천190명에 달했다.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은 남자 중학생이 3만7천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여자 중학생이 2만6천533명으로 가장 많아 중학생에게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이 두드러졌다. 초등 1학년 보호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습관 관찰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해진 이용시간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시력·자세 등에 좋지 못한 영향이 있어 지도가 필요한 '스마트폰 관심군' 학생은 1만6천942명으로 파악됐다. /연남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실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편집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지10(가)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